

송암산단, 문화 콘텐츠산업 거점 기지로

'광주실감콘텐츠큐브' 착공...생산·소비·체험 등 거점 역할 국·시비 1046억 투입 2021년 완공...2000여개 일자리 창출

광주시의 대표적 노후 산업단지인 송암 산업단지가 광주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문화 콘텐츠산업의 거점 기지로 거듭난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의 문화콘텐츠 생산, 소비, 체험의 거점 역할을 할 광주실감콘텐츠큐브(Gwangju Content Cube, 이하 GCC)가 이날 착공식과 함께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이날 송암공단 현장에서 열린 착공식에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장병완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GCC 착공에 따라 빛가람 혁신도시 내

문화예술분야 행정기관인 문화예술위원회, 콘텐츠진흥원과 공연·전시를 담당하는 아시아문화전당을 잇는 '문화삼각벨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 남구 송암공단 일원의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새로운 문화콘텐츠밸리로 조성하는 GCC는 면적 1만7913㎡, 건축 연면적 2만346㎡에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로 지어진다. 여기에는 국비와 시비 1046억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애초 지난 2012년과 2013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잇따라 탈락하면서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았지만, 기획예산처 장관 출신으로 광주 남구가 지역구인 장병완 의원이 소매를 걷어 부치고 나서 2015년 1013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면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송암공단에 들어설 GCC는 사용자의 몰입감, 현장감 등의 극대화를 위해 인간의 오감과 느낌이나 감성까지 자극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활용해 사용자에게 실제감을 전달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작하고 체험하는 공간이다. 이 곳에는 홀로그램, 모션캡처, 증강현실 등 첨단실감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창조 콘텐츠 제작지원센터를 비롯해 콘텐츠 전시, 마케팅을 지원하는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플라자, 아외스튜디오, 체험 테마파크

등이 들어서게 된다. 실감콘텐츠 체험시설이 구축될 GCC의 착공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CGI센터와 연계해 광주의 문화콘텐츠 관련 창업과 일자리 창출의 산실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광주 유치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섭 시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광주실감콘텐츠큐브가 완공되면 CGI센터와 함께 문화콘텐츠의 생산-소비-유통의 생태계가 완성돼 향후 전국에 2000여개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계획이다"면서 "송암산단을 4차 산업혁명시대의 중심인 콘텐츠-ICT 융합 문화산업단지로 재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이 18일 오후 남구 송암산단에서 열린 '광주실감콘텐츠큐브' 착공식에 참석해 장병완 국회의원, 김병내 남구청장, 시의원 등 주요내빈들과 공사 시작을 알리는 발파버튼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광주에 드론공원 조성된다

북구 드론비행연습장 확장1만여㎡ 규모 조성

市-익산국토청-북구, 업무협약

드론 저변 확대와 시민들의 레저활동을 위해 광주 북구 대촌동 '광주시민의 숲' 인근에 드론공원이 조성된다. 광주시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북구청과 '드론 공원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하천부지 내 드론비행이 가능한 레저·문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을 변경해 추진하게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시민들의 레저, 취미활동을 위한 행·재정적 투자를 하고, 익산국토청은 하천부지 내 점용허가를, 광주 북구는 드론공원 조성과 드론공원 활성화 및 운영을 맡게 된다. 드론 공원은 광주시민의 숲 인근 하천부지에 위치한 드론 비행연습장에 1만 343㎡ 규모로 조성된다. 현재 드론 공원은 지난 5월부터 드론 교관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를 통해 기초체험반, 항공촬영반 등 시민을 대상으로한 무료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드론 비행연습장으로 운영중이다. 광주시는 앞으로 드론공원을 조경방 비행장지 상시 실기시험장



으로 지정받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 중이다. 상시 실기시험장으로 지정되면 시민들이 드론 자격증 취득을 위해 전남 순천, 장흥 등 타지로 가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8월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31사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LIG넥스원과 '국방드론 산업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순경중 시 전략산업육성은 "지역 전략산업인 드론산업 육성을 목표로 먼저 시민들이 드론을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인프라로 드론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며 "향후 시민의 숲 물놀이장, 야영장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 등을 통해 더욱 풍부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 농민 6명 '최고 장인' 영예

농림부, '농업마이스터' 44명 선정...참다래 이연옥 씨 등

우량꽃가루를 스스로 만들어 고품질 참다래 생산에 활용한 여성농업인 이연옥(여·51) 씨 등 전남지역 전문 농업경영인 6명이 '농업마이스터'로 선정됐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제 4회 농업마이스터'로 이 씨 등 농업경영인 44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농업마이스터는 재배품목에 대한 전문기술과 지식, 경영능력 및 소양을 갖추고 농업경영·기술교육·상담을 할 수 있는 농업분야 최고의 장인(匠人)을 일컫는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3년부터 2년마다 심사를 통해 선정·발표하고 있다. 4회까지 치러진 시험을 통해 모두 224명이 '농업마이스터'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이번 시험엔 '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에는 전국에서 총 336명이 응시했다. 응

시자별로 영농 경력 15년 이상, 전문성, 교육능력 경력실태 및 기술전수계획, 현장 실사 등 총 22개 품목을 심사했다. 전남에서는 김중욱(단감·구례), 이연옥(참다래·순천), 박상표(버섯·광주), 김관후(블루베리·화순), 니광철(블루베리·장성), 노상현(친환경과수·화순) 등 모두 6명이 선정됐다. 전남지역 농업마이스터는 경북(11명) 다음으로 많았다. 이들 대부분은 12~28년간 영농 경력을 통해 재배 품목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다. 농업마이스터로 지정되면 농식품부와 각 지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사업 등에 현장실습 교수, 귀농·귀촌 및 후계농지도자, 영농상담사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농업선진국의 국외연수(1주일) 기회도 받게 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부, 日 백색국가 제외...“국제공조 어려운 국가” “정·수시 비율 조정, 대입개편 논의 대상 아냐”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가 18일 오전 0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비(非)백색국가 수준의 규제를 받는 '가의2'로 분류하는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맞서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데 이어 두 번째로 나온 대응 조치다.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계의 기본 원칙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며 "이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해 수출관리를 강화하고자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12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고 8월 14일~9월 3

일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이메일 등을 통해 들어온 의견을 종합한 결과 찬성이 91%로 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견수렴 후 법적제거 검토, 규제심사 등을 거쳐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1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개정 고시를 보면 기존 가 지역 29개국 중 28개국은 가의1에 들어가 백색국가로서의 혜택을 그대로 누린다. 가의2에는 현재 일본만 포함되며 원칙적으로 비백색국가인 나 지역에 상응하는 규제를 받는다. 가의2는 개별수출허가를 신청할 때 신청서, 전략물자판정서, 영업증명서 외에 최종수하인 진술서와 최종수용자 서약서를 추가해 총 5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매자와 최종수하인 및 최종수용자가 동일한 경우 최종수하인 진술서는 면제된다. 개별수출허가 심사 기간은 기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변경된다. /연합뉴스

당정청, 비공개 실무 협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8일 대입제도 개선방안과 교육 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실무 협의회를 열고 정시·수시 비율 조정은 현재 대입제도 개선 방안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 등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청와대에서는 김연경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조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기국회 관련 법안과 예산 얘기와 대학발전 지원방안 후속계획 보고가 있었다"며 "고교 무상 교육 추진과 사립학교법 개정 등이 주요 논의 내용이었다. 대입제도 관련 논의는 안 했고, 상황 공유만 있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부총리도 저도 얘기했지만,

수시·정시 비율 문제는 이번엔 포함될 수 없다"며 "현행 제도 내에서 공정성,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와 대학 진학과정에서의 특권 구조, 불공정 문제를 어떻게 바꿔나갈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대입에서 (정시)를 몇 퍼센트 늘리는 것은 본질적인 주제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대학입시 제도 개편'과 관련해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으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각에서 거론되는 정시 확대에 대해 선을 그었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 문제와 관련한 상황도 공유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올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대상 무상교육을 하자는 입장이나 자유한국당은 "내년부터 고교 전학년에 대해 무상교육을 하자는" 역제안을 내놨다. /연합뉴스

부안곰소 토지매매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265-5외 14필 (계획관리지역)

- 졸포·IC·10분거리 해안탐방도로 (현 공사중)
- 곰소염전인접, 내소사 10분, 졸포생태공원 10분
- 조망 : 앞 - 곰소만바다 뒤 - 내변산국립공원

매매가 **평당 35만원**
면적 **약 2만평 분할 가능**

리조트·숙박시설·근생 모든 업종 개발 가능

문의 **010-5464-4448(주인)**

이행하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2019 산학협력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광주광역시와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 주최하고 광주여자대학교에서 주관하는 2019 산학협력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교육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산학협력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은 무엇인가요?
R&D 전주기에 걸쳐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 간의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산학협력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

모집개요	자격요건	교육내용	교육시간	모집인원
	광주광역시 거주 시민 (미취업자, 경력단절여성 우선)	산학협력의 이해,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소기업 지원법규,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및 기술활용, 프랜차이즈 실무, R&D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전략적 의사결정기법 등	45시간	30명

모집기간 2019.09.02.(월) ~ 2019.09.20.(금)
교육기간 2019.09.23.(월) ~ 2019.11.13.(수)
교육시간 매주 월, 수 18:30 ~ 21:30
교육장소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어등관 3104호실
교육특전 교육비 지원, 교재 제공, 수료증 발급 등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방문 및 메일 접수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접수처 우)62396 광주시 광산구 여대길 201 광주여자대학교 어등관 1층 평생교육원 * 메일 : always@kwu.ac.kr
문의 062) 950-3583~5

주최 | 광주광역시 | 광주평생교육진흥원 | 주관 | 광주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농업회사법인 나주농산

농산물 저온창고 임대·보관

■ 콘크리트 신축건물 20평~23평 등 (총 400평)

배·사과·양파 등 임대보관

● 신년서비스 ●
임대로 저렴하게 드림

위 치 나주시 문평면사무소 뒤
연락처 **010-3993-3022**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제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